



해외화제도서, 1820년 책표지를 골판지로(?)

편집실 제공

지난 5월 23일에서 26일까지 파리에서 열린 ‘제 14 회 국제 고서 시장’ 은 파리 시민들에게 평소 쉽게 접하지 못하는, 신비로운 ‘고서의 세계’ 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고서 시장에는 29 개 나라에서 200여 고서적 서점들이 참가해 2만5천 권의 희귀한 고서적들과 유명 작가들의 자필원고, 판화 등을 선보였다.

유럽에서 ‘고서’ 라 함은 일반적으로 ‘인쇄술의 발명’ 과 ‘종이의 사용’ 으로 오늘날의 ‘책’ 모양을 띠기 시작한 15세기 이후의 책들을 일컫는다. 좁게는 책 제조방식이 산업화되지 않았던 18 세기까지의 책들만을 ‘고서’ 의 범위에 넣지만, 그 이후의 책들도 신간 서적을 판매하는 일반 서점에서 구할 수 없는 것들이라면, 모두 ‘고서’ 목록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책 사냥꾼들’ 의 관심은 19세기를 넘어 20세기 전반에 출간된 책들에까지 미친다.

‘고서’ 는 헌책이기는 하지만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그 희소성과 역사적 가치로 인해 상품 가치가 무척 높아진 책들이다. 따라서 브로캉트(마을 벼룩시장)나 헌책방에서 헐값으로 구입할 수 있는 중고 서적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가벼운 마음으로 강변을 거닐면서 ‘고서’ 를 구경하려면, 센 강변의 명물인 부키느리(고서적 판매대)를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전문적인 수집상이나 고서적 애호가라면 이번 ‘고서 시장’ 과 같은 특별 행사를 이용하거나, 전문 고서점을 직접 방문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파리의 고서점들은 한 곳에 모여있지 않기 때문에, ‘책 사냥꾼’ 들은 좋은 ‘물건’ 을 건지려면 이리저리 발품을 팔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 파리의 고서점은 19세기 초엽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당시에는 고서점 수가 오히려 일반 서점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하는데, 아마도 책 출판이 여의치 않은 사정 때문이었으리라.

18세기 이전에 나온 ‘고서’ 의 외형적 특징은 책표지 전체를 ‘가죽’ 으로 입혀 고급스럽게 장식



했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1820년을 전후해서 나온 책들은 '책등' 에만 가죽을 입히고 책의 앞뒤 표지를 두꺼운 골판지에 '친' 으로 덮는 '반 가죽' 제본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이후 제조원가를 낮추기 위해 책 제본은 더욱 간결해졌고, 오늘날은 대량생산이 가능한 '종이표지판' 이 대중을 이루게 된 것이다. 이처럼 '책의 민주화' 를 이루게 되었지만, 그 대가로 오늘날의 책들은 전통적인 '고서' 들처럼 '호화로운 겉옷' 을 걸칠 수 없게 되었다.

테오필 고티에의 주석이 달린 보들레르의 '악의 꽃(1894년)' 이 380 유로, 빅토르 위고의 '노트르담 드 파리(1832년)' 가 120 유로, 에밀 졸라의 마지막 책인 '파스칼 박사(1893년)' 가 150 유로...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프랑스 작가들의 19세기 판본이 이 정도 가격이라면 전문적인 '책 사냥꾼' 이 아닌 '책 애호가' 들도 부담 없이 눈독을 들일만한 '고서' 들이 아닐까?



골판지포장의 발전 계기가 된 「 프리담의 판결 」

포장개발이야기 - (주)포장산업 발행

1903년에 들면서 미국에서는 골판지상자용의 시트가 연속적으로 제조되는 기계가 개발·가동되고 또한 스틱칭으로 접합하는 평철사 접합상자(Wire Stitched Box)도 개발되었다. 이때에 곡물의 수송용기 형태로서 양면골판지로 만든 골판지상자가 공식적으로 미국의 화물품목 분류위원회(미국 철도수송 규정)에서 인정허가를 받았다.

1차세계대전이 끝날무렵까지만 해도 포장용으로 목재용기가 80%, 판지용기가 20% 정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2차대전이 끝날무렵에는 80%가 판지포장(Corrugated/Solid Fibreboard)이었다.

그런데 미국에서 골판지상자의 발전이 가속하게 되는 계기는 1914년의 “프리담의 판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생 미국의 발전에 독립선언문이 연관되듯이, 골판지상자의 발전에 「프리담의 판결」이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비유될 정도로 중요하다.

당시 미국에서는 골판지나 두꺼운 판지로 포장된 화물은 나무상자로 포장된 화물보다 높은 비율의 운임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1912년 까지만 해도 골판지나 판지로 만든 Box가 목재용기의 대체 품이 될 수 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1912년 미국의 동부에 위치하고 있던 R.W. Pridham회사가 서부의 캘리포니아주 Los Angeles에 공장을 지을 계획을 세우고, 물자들을 목재용기로 포장하기보다는 골판지포장으로 운반할 계획을 세웠는데, 운반비도 같거나 비슷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런데 그 신청서가 Pacific Coast Railroad(PCR)에서 거부되고 만 것이다. 그러면서 PCR은 목재를 쓰지 않고 종이로 만든 상자로 운반



하게 되면 벌칙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이다.

그리하여 프리담 회사는 1912년 캘리포니아주의 상무위원회(州際商務委員會, 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에 “이것은 목재업자, 목재상자 제조업자, 철도당국의 3자가 골판지와 판지업자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라며 제소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심의를 거듭한 결과, 이 위원회(정부)에서는 1914년 4월 6일에, “물자를 수송하는데 있어 목재로 만든 상자나 종이로 만든 상자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 어떠한 수송상의 불이익이나 운임을 차별해서는 안된다” 라고 하는 판결(Docket 5273)을 내리게 된다. 즉 목재나 종이 양측의 운임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판결을 「프리담의 판결(Pridham Decision)」이라 하고, 이것은 골판지포장의 개발, 발전에 대단히 의미 있는 승리가 되었다.

이로서 골판지용기가 철도수송되는 제품의 포장용기로서 인가된 것이다. 연이어 트럭수송업계에서도 골판지용기를 인가했다.

이에 따라 이때부터 골판지는 나무상자의 대체포장재료의 이미지를 갖게 되었고 포장재료로서 발전의 길을 걷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 판결은 골판지포장 발전의 기틀을 다지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오늘날 운반용기의 거의가 판지 및 골판지재료로 되고 있음은 이 결정의 공로가 크다고 할 것이다.